

2017 년 4 월 30 일 “찾아오신 예수님(28) 단절속에서 들려주시는 새 계명”(요 13:31-35)

<도입>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부인할 수 없는 큰 원리는 서로가 맺고 있는 관계성입니다.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식물 - 씨를 품어주는 흙이 있어야 하고 뿌리가 나오면 흙의 양분에 의지해야 합니다. 싹이 트면 빛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식물의 성장은 다른 것들과 많은 직간접적 관계성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등, 어떤 분야이든 관계가 보완적인가, 의존적인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상호 관계성을 규명해내면 하나의 법칙 또는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피조계, 또 사람과 하나님/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1] 사람이 바르게 맺어야 할 관계들

창 1:26, 28 땅에 충만하고(존재감이 있어야), 정복하고 다스리는(즉,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사람이 가져야 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창 2:18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은 관계성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로서 자신이 맺는 모든 관계의 대표성을 띠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재난/가난/질병이 있어도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그 상황을 이기게 해줍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높아져도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고전 13 장. 사랑의 찬가 참고)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때 양쪽 모두 축복을 얻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곧 하나님과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불신은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2] 인간의 문제

여기서 발생한 단절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과 3 년 다니면서 사랑보다 불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유는 민족주의적 이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념에 빠지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념 뿐 아니라 욕심, 미성숙함, 거짓에 속음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유다는 단절 중에서도 최고 악한 경우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배반**입니다. 배반은 상대를 모욕과 수치와 죽음으로까지 내몰니다. 관계가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을 요한은 밤으로 표현했습니다(30 절).

그런데 주님은 이 밤에 이어 또 다른 밤을 예고 하십니다. 36 절 이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자 요한은 가장 신뢰받고 똑똑했던 제자 유다와 가장 앞장섰던 수제자 베드로의 배반으로 가장 처절한 밤이 덮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큰 좌절의 상태일 수 있는지를 말하려고 배반과 배반의 이야기 사이에 본문을 끼워 놓은 것입니다. 절묘한 문학적 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 반전의 새 계명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은 ‘그래 확신하던 것(십자가 죽음)이 왔구나. 이제 됐어, 이것이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습니다(선지자적 과거형).

그리고 밤의 클라이맥스에서 죽음 앞에서 들려주시는 반전의 말씀은,

34 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상황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두 제자의 배반과 버림을 당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새 계명은 얼마나 신빙성이 안 가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이것을 노렸습니다. 절망과 체념 가운데서 우리가 딱 하나 붙들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그 사랑에 감화될 때 사람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그에게 생명의 힘이 솟아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때 부활 생명의 힘을 얻은 것과 같이 성도에게도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결론은 '성장'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그의 모든 작품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성장하지 않으면 죽음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나무에 얹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밤의 절망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게 사랑의 새 계명의 삶이 분명히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 이것이 가장 큰 소명임을 인정하고 이 사랑의 길을 충성스럽게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줄 알게 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

1.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과 상대를 불신하고 결국 단절로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면 단절의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직하게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각자의 인생의 목표를 말해봅시다. 그 가운데 주님의 새 계명이 핵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더 중요하고 선한 무엇이 있을까요?
3. 가장 다양하고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사랑의 어떤 능력을 믿으시나요? 주님과 또는 가족이나 친구와 밤이 덮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때 축복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